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에어텍** 마블 어벤져스 공기청정기

"캡틴 아메리카 공기청정기로 세계 시장 공략"

〈美 마블 영화 캐릭터〉

소형 공기청정기 전문기업인 에어텍이 해외 박람회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끈 제품은 빨간색 '아바네로2'였다. 빨간색 둥근 원이 퍼져 나가는 모양이 마블 영화에 등장하는 '캡틴 아메리카 방패'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박선영 에어텍 대표는 "작지만 강한 공기청정기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탄생한 제품이 '아바네로'였다"며 "공교롭게도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와도 크기가 비슷했다"고 말했다. 에어텍은 지난해 마블의 공식에 어전트인 한국 디즈니와 계약을 체결하고, '마블 어벤져스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 아바네로 제품에 마블 디자인을 더한 이 제품은 미국, 대만, 태국 등 전 세계 10여 개국으로 수출된다.

박선영 에어텍 대표가 '마블 공기청정기'를 개발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김기만 기자

◆작지만 강한 공기청정기

박 대표는 "아바네로 공기청정기 디자인은 잔잔한 물 위에 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질 때 퍼지는 파장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작지만 아름답고 강력한 공기청정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에어텍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정화하는 필터에서 차별화를 시도해 '소형화' '성능'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잡았다.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헤파필터나 이오나이저가 아니라 집진 능력이 좋은 'e-나노필름필터'를 채택했다. 박 대표는 "부직포로 만든 헤파필터는 습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며 "정전기 방식의 필터는 청소한 뒤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집진능력 뛰어난 나노필름필터
부피 줄이고 다양한 디자인 설계
해외에서 주목받은 원형 디자인

국내 자체 공장서 생산
스피커·무드등 결합한 제품 개발

공기가 쉽게 잘 통하는 필터 구조 덕분에 저전력, 저소음 설계도 가능했다.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피도 동급 대비 절반으로 줄였다. 크기는 작지만 청정 기능은 유지되도록 필터를 양쪽에 달았다. 공기가 유입되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에 모두 필터가 장착돼 있다. 부피를 줄이면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응용이 가능하게 됐다.

UFO 모양으로 만든 '무선 공기청정기 UFO'는 910g의 가벼운 무게로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미키마우스와 같은 피규어를 올려놓을 수도 있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하는 제품이다.

◆필터 경쟁력 바탕으로 제품 다양화

박 대표는 고가의 공기청정기를 대신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한 공기청정기를 개발하겠다는 생각으로 2013년 에어텍을 설립했다. 공기청정기 생산 공장도 인수했다. 그는 국내 주방가전회사에 10년 넘게 다니면서 영업과 유통을 담당했지만 제조업 창업은 처음이었다. 그는 "차별화한 필터와 디자인을 갖춘 공기청정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체 공장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에어텍 제품 대부분은 국내 자체 공장에서 생산한다.

에어텍은 필터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형 공기청정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블루투스 스피커, 무드등과 결합한 공기청정기를 출시한다. 벽에 붙이거나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블 공기청정기도 추가로 선보인다. 올해 매출 목표는 지난해(25억원)의 2배인 50억원 이상으로 잡았다. 박 대표는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거실이나 큰 방을 위한 대형 제품 위주로 형성돼 있다"며 "다양한 캐릭터와 강력한 성능으로 소형 공기청정기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7~9월 으뜸중기 제품 △어댑트-다운핏 △지비솔루션즈-루나스퀘어 엘리사 △그린테크롤-360폰즈 칫솔 △에어텍-마블 공기청정기 △테크온비전-화면 분할 모니터 △아이티버스-마우스 스마트패치 △오토싱-자동물걸레 진공청소기 △푸드마스터그룹-닥터할리 펫 밀크 △홈톡스닷컴-아쿠아팟 수중식 물공기정화기 △대정-하이진물병, 시크릿보틀 △작은평화-내 손안의 스마트 에어텐트 △씨엘바이오-올인원 크림바

"타이레놀·겔포스 모두 안된다" '약사공화국'에 막힌 편의점 약 확대

현장에서
이지현 바이오헬스부 기자

"겔포스엠 현탁액은 3개월 미만 영아가 복용해선 안 되는데 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에 안전상비약 부적합 통보를 하지 않았나."(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비약 품목에 겔포스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류영진 식약처장)

약사 출신 국회의원·식약처장
부작용 들어 겔포스 판매 반대
의료계 "명분 약하다" 반발

"편의성 만으로 여론을 조장하면 안 된다."(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6일 국회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판매 상비약 명단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낸 국회의원들과 식약처장 간 대화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약사 출신이다. 편의점 상비약 명단 조정을 앞둔 복지부가 약사들에게 편향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복지부는 오는 8일 편의점 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연다. 약국과 병원이 문 닫은 시간에 국민의 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13개 의약품을 팔고 있다. 지난해 복지부는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심의위를 꾸렸다. 보령제약의 제산제 겔포스, 대웅제약의 지사제 스멕타를 새로 넣고 용량이 다른 품목이 두 개씩 포함된 베아제와 훼스탈을 하나씩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의 자해 소동으로 논의는 7개월 넘게 중단됐다.

최종 품목 조정을 앞두고 약사들이 또다시 반대 여론몰이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겔포스 등을 추가하는) 상비약 명단을 표결에 부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약사회는 "타이레놀을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고 편의점 판매 허용시간을 심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한 동네의원 의사는 "겔포스가 영아 금기약이고 부작용 사례가 2년간 7건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데 상식적으로 3개월 미만 아이에게 겔포스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편의점에서 약을 아예 팔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상비약 명단을 인공눈물, 화상연고, 소독약, 멀미약 등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개 품목만 편의점서 살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3만 개, 일본은 2000여 개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다. bluesky@hankyung.com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의사협회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해야"

"7월 한 달 동안 네 건의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긴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365일 24시간 진료를 하면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의료인 폭행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이날 낮 12시 의사협회 임원 20여 명과 함께 거리에 나섰다.

지난달 1일 전북 익산병원에서 술에 취한 40대 임모씨가 당직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주취자들의 의사 폭행 문제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는 15만 명이 지지서명을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中企 5개 이상 모이면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지원

비슷한 제조공정을 지닌 중소기업이 5개 이상 모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들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2018년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유사한 제조공정을 지닌 중소·중견기업이 5개 이상 모여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개별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스마트공장 도입 비용의 50% 이내로 최대 4000만원이다.

도입 기업은 양질의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축할 수 있고, 공급 기업은 동일한 시스템을 다수 기업에 판매해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피 한 방울로 5분내 질병 족집게 진단"

헬스케어 스타트업

강길남 바이오메트로 대표
美·中·유럽 등 해외진출 추진

"피 한 방울로 5분 만에 병에 걸렸는지를 알 수 있는 면역진단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길남 바이오메트로 대표(54·사진)는 최근 "국내보다는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시장에 초점을 맞춰 제품을 개발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체외진단기 '루시아'는 진단 속도가 빠르고 적은 양의 피로 검사가 가능하다. 병원 등 의료현장에서 주로 쓰는 진단기기는 체외진단에 1시간이 넘게 걸린다.

루시아는 전기화학발광법(ECL) 기술이 적용됐다. 전 세계적으로 병원 실험실과 진단센터에서 주로 쓰고 있는 다국적 의료기기업체 로슈진단의 대형 진단기기와 유사한 방식이다. 강 대표는 "로슈진단 제품에는 전자석, 백금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수억원에 달하고 크기가 크다"며 "루시아는 수백만원으로 싸고 책상에 올려놓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설명했다.

바이오메트로는 중소병원이나 보건소 등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강 대표는 "로슈 제품은 20명 이상의 피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어 대규모 건강검진 등에 효율적"이라며 "한 명을 빠르게 검사해야 하는 응급실 등이 루시아의 잠재적 수요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심장질환, 패혈증, 독감 등 응급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하는 키트를 우선적으로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시아는 최근 유럽에서 CRP(염증을 판별하기 위한 단백질의 일종) 측정 용도로 시판 허가를 받았다. 미국 중국 등으로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내년께 임상에 나설 예정이다.

강 대표는 영국 런던정경대를 나와 뱅커스트러스트 모건스탠리 등에서 근무했다. 2016년 바이오메트로를 창업했다. 그는 "핀란드 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20년 이상 해왔다"며 "5년 전 이들을 만나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회사를 세웠다"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제7기
부동산 경매 특수물건 투자 토요 실전반
부동산 경매 + 특수물건 분석 + 실전투자
일 정 2018년 9월 8일 (토) ~ 10월 13일 (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4시 (총 18h)
대 상 ·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 · 경매투자를 통한 재테크를 원하는 분 · 투자비법 및 권리분석을 배우려는 공인중개사 · 월세로 노후대비를 하고자 하는 분
교 육 비 500,000원 2인 이상 등록시, 각 10% 할인
장 소 한국경제신문 3층 (2,5호선 충정로역 4번출구, 도보 3분)
문 의 02-360-4049, 02-761-0441 http://ac.hankyung.com
9월 4일 사전 무료 공개 특강 접수중

상속한정승인공고

사채 조기상환권 행사 공고
신한은행에서 2011년 08월 26일 발행한 금융채 신한은행 제15회-08-이-15-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Call Option을 행사하고자 공고합니다.
가. Call 행사 주식 : 사채조기상환권 행사
나. Call 행사 비율 : 100%
다. Call 행사 금액 : 1,000억원
라. Call 행사 시기 : 2018년 08월 27일
마. Call 행사 장소 : (주)신한은행 자금부
2018년 08월 06일 신한은행

합병으로 인한 주권 및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합병으로 인한 주권 및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경청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35년 연구로 증명한 기적의 소통법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종종 갈등을 겪는 이유는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다.
듣는 것만으로 마음을 얻는다
마이클 니콜스 지음 | 이은경 옮김 | 값 16,000원

데이비드 버커스
경영의 이동
(싱커스 50) 선정
미래의 경영을 선도할 차세대 사상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75호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자 변경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섬강 원주지구 외 1개소 하천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섬강 원주지구 외 1개소 하천정비사업
○ 위 치 : 횡성지구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중하리 ~ 원주시 호저면 일원
원주지구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 원주시 지정면 일원
○ 시 행 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 사업내용 : 축제·보축·호안 설치, 자전거길·산책로 조성, 하도정비, 교량 재가설, 취입보·보도교 신설, 다목적광장 및 데크 조성 등
2. 공람 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횡초 : 2018. 8. 2 ~ 2018. 8. 31, 원점 : 2018. 8. 2 ~ 2018. 9. 5.
○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원주시 환경과, 횡성군 환경산림과, 횡성 횡성읍사무소, 횡성 서원면사무소, 원주 호저면사무소, 원주 소초면행정복지센터, 원주 지정면행정복지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시·군	일시		장소	비고
	당초	변경		
횡성군	2018. 8. 7. 10:00	2018. 8. 23. 10:00	횡성청소년수련관 3층 대강당	주민설명회 개최 일자 변경
원주시	2018. 8. 7 15:00.	2018. 8. 23. 15:00	원주시 호저면사무소 회의실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시기 : 공람개시후 ~ 공람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5. 기타 자세한 내용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033-769-56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74호 내용 중 공람기간 및 주민설명회 일자 변경에 대한 사항임.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자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장점 -
◈ 최대 200억의 높은 한도
◈ 0~3%대의 낮은 금리
◈ 5~10년의 넉넉한 상환기간
◈ 무상지원금 등 300여가지의 다양한 종류
창업자금/정책자금/시설자금/운전자금/사업계획서
자금 확보,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17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수상
국제표준화기구 ISO9001(서비스품질) 인증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상담회사
KTB 투자증권 협약 기업
네이버에 코어씨앤씨를 검색해보세요!
무료상담문의 02-322-3944